

1930년 3월 29일 4면1단

懷疑主義 批判(十二)

-思想과 生活의 方法論-

裴相河

페-루 배일(1647-1706)

以上の 懷疑論者와 조금 色彩를 달리한 懷疑論

그가 世的 眞理의 不確實性을 自覺함으로써 宗教的 信仰에서 일어나는 眞理만을 참된 眞理라 할 수 있다함은 以上の 懷疑論者와 갓거니와 그러나 以上の 懷疑家들이 널우나 無條件하게 沒批判的으로 獨斷的으로 宗教的 眞理만을 미더야만 한다 함에 對하여 그는 人世的 眞理를 疑心하는 꼭 가튼 理由 아래에 宗教的 眞理도 또한 그것을 眞理라고 許認하기 前에 疑心하여 보지 안흐면 아니 된다고 主張한 點에 잇서서 以上の 懷疑家들을 超越하고 있다. 그기로 그는 宗教的 眞理를 徹底히 疑心한 結果 그것은 非合理的이며 非信賴的인 것을 깨다랐다. 그러나 人世的 眞理는 『아』는 것이로되 宗教的 眞理는 『밋』는 것이다. 그럼으로 아러야 하는 人世的 眞理로써 非合理的이며 非信賴的인 것 가트면 『알수 업는 것』이 되고 말지라도 미다야 하는 宗教的 眞理는 아모리 그것이 非合理的이며 非信賴的인지라도 또 그것이 非合理的이며 非信賴的인 까닭에 吾人은 그것을 『밋지 안흐면 아니 된다』고 한다. 맞지 中世 護敎家の 테루루아누스(160-220)와 가튼 立證이다.

그럼으로 要컨대 『배일』의 懷疑論은 더욱 徹底하다 할 수 잇지만은 結局 宗教에게 利用된 懷疑論에 지나지 안는다.

徹底한 懷疑論家 사밋드·흠[데이비드 흠](1711-1776)

以上の 懷疑論家들은 大概 懷疑論으로써 宗教的 立說에 對한 한 개의 手段的 方法論으로 利用하엿슴에 對하여 흠의 論說은 徹頭徹尾 懷疑的 土臺를 基礎삼어 있다.

그는 말하되 吾人은 現象的 知識은 論證的으로 確實하다 할 수 업다. 換言하면 吾人의 知識의 對象인 客觀的 存在에 지나지 안흠인지 그것이 必然的 聯關에서 生겨 낫다고는 斷定 할 수 업다고 한다. 그럼으로 『데카-프』·『록크』·『버-크래-』 등은 客觀的 存在에게 必然性을 附與키 爲하여 因果關係라는 巧

妙한 前提를 세우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客觀的 存在는 因果關係에서 必然的으로 生起하지 안흐면 아니 된다고 한다. 그러나 徹底한 懷疑家인 『흠』은 『데카-프』 등이 前提한 바 因果關係를 疑心하고 있다. 卽 한 개의 因이 必然的으로 한 개의 果를 招來한다 함은 吾人으로써 直觀的으로 認知 할 수 업는 바이다. 吾人이 直觀 할 수 잇는 바는 두 개의 觀念의 異同關係와 時 間 空間에 잇서서의 隣接關係에 지나지 안흐이니 한 개의 因이 한 개의 果를 招來한다 함은 吾人이 直觀的으로 經驗 할 ㅅ름이다. 그 因과 그 果 가운 데 必然的 關係가 잇다함은 卽 因果關係는 吾人이 經驗하기 前에 『아푸리오 리』하게 存在한다 함은 吾人으로써 論證 할 수 업는 虛空的 推測에 지나지 안는다. 그러나 吾人은 어셔한 因이 잇슬 ㅅ엔 (번개를 보면)어셔한 果가 生기리라. (우뢰소리가 들리리라)고 豫期함은 事實이다. 이 豫期는 因과 果사이에 (번개가 치고 나면 우뢰 소리가 들린다라는)客觀的 關係가 잇슴으로서의 豫期가 아니요, 吾人의 過去에 잇서서 그 因이 잇슨 뒤엔 (번개가 치고 나면)그 果가 생기드라. (우뢰 소리가 들리드라)라는 여러 번의 經驗에 잇서 엇은 聯想으로서의 豫期에 지나지 안는다. 그럼으로 因果關係의 基礎는 主觀的 心的 作用인 聯想에 잇다.

이와 가티 『흠』으로써 因果關係의 客觀性은 推絶當하고 마렀다. 『흠』의 懷疑는 果然徹底하다. 그러나 因果關係의 客觀性을 否認한다함은 그의 哲學만을 모래 위에 建築하고 잇다는 不安 ㅅ니 아니라 모-든 學的 學問의 基礎 그것 이 動搖하지 안홀 수 업게 된다. 換言하면 因果關係를 否認함은 全學的 基礎를 否認함과 다름이 업다. 그럼으로 그의 哲學도 ㅅ한 그의 否認으로써 否認을 當 할 수 ㅅ게 업다. 그는 그의 칼로 그의 목을 ㅅ이지 안흐면 아니되는 矛盾에 ㅅ지어 잇다. 『흠』에게 對한 批判은 모든 懷疑를 批判하는 ㅅ음이 될 것이다. 그러나 果然 『흠』의 否認한 바 因果關係의 客觀性은 否認을 當하고 말 것인가? 안인가? -이를 解決하자 함은 本論의 主旨가 아니다.

ㅅ흐로 『안시크로 페디스트』인 『다람벨』(1717-1783)의 懷疑說을 簡單하게 紹介한다.

-吾人의 感官이 外的 存在를 知覺 할 수 잇슴은 事實이다. 그러나 吾人이 知覺 할 수 잇다하드래도 知覺의 對象物이 果然存在하고 잇슬까? ㅅ는 知覺의 對象物이 存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吾人이 知覺한 바와 틀림 업는 것일 ㅅ까?

『다람벨』의 懷疑論도 『흠』의 그것과 가티 哲學 上의 絶對的 懷疑論 ㅅ는 徹底한 懷疑論이라 할 수 잇다. 宗教에게 利用된 懷疑論이 아니다.